

三九四年 太祖三年에 세워진 것으로 現在 碑를 向하여 倒壞되어 있다. 復元은 可能하며 李朝浮屠중 最優秀作品으로 推定된다. 浮屠앞에는 石燈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現在山中腹一庵子에 移建되어 있는데 下臺石은 稀貴한 例로써 慶州 南山 天龍寺址龜趺와 같으며 그 위는 方形의 竿石 中臺 火舍石、屋蓋로 되어있다. 이는 浮屠에 比하여 매우 秀麗한 手法을 보여 同代의 것으로 보기에 疑를 勿하다. 碑는 億政寺 大智國師 碑와 同類의 것이며 이 附近에는 石鍾型浮屠가 散在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 再調査가 있기를 바란다.

浮屠實測值

屋蓋의	一邊의 幅	五六cm	高	六〇・五cm
塔身	一邊의 幅	三五・五cm	高	五八・五cm
中臺石	一邊의 幅	四五・七cm	高	二八cm
地臺石	一邊의 幅	五七m	高	三三三cm
中臺와	下臺石은	같은		

安城郡 七長寺의 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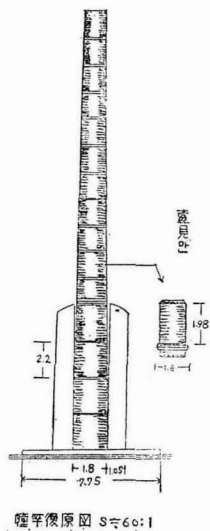
申 榮 勳

一九六一年 夏季 安城郡一帶를 踏查하던중 七長寺를 尋訪、遺物을 調査한 바 있다. 七長寺는 當時 竹山縣(現安城郡二竹面)의 最高의 寺刹로 모든 文物이 具備되었고 高麗以來로 國家에서 重要視하여 高僧大德이 多數輩出되고 特히 文宗代의 人物인 慧炤國師가 入寂하는 등 沿革도 多彩로운 寺院이다. (事蹟碑文參照)

지금도 諸法殿과 石造遺物이 多數遺存하고 있어 盛期의 面貌를 엿보게 한다. 그중 重要한 것만을 略記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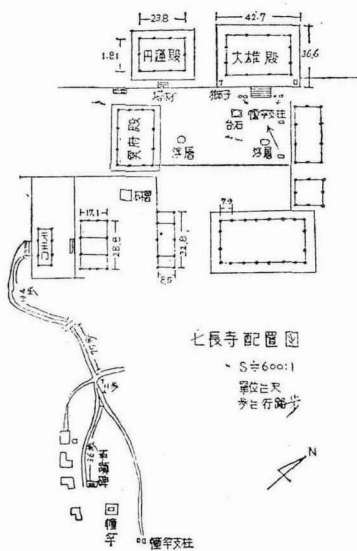
洞口聚落路上에 「朝鮮國竹山七賢山七長寺重修香火事蹟碑銘 并序」云云 한 石碑가 岩盤上에 豎立되어 있다. (崇禎四四年辛亥六月日立) 이 碑에서

오던 길을 돌아다 보면 田中에 目測二十 五餘尺高의 鐵製幢 竿을 發見하게 된다. 圓筒形의 鐵物을 十 五節 맞추어 올려 세운 幢竿을 花崗石製



幢竿復原圖 S=60:1

의 支柱가 버티고 있다. (圖面參照) 언제쯤인지 무너진 것을 近來에 다시 세웠는데 積心으로 薪炭材를 넣어 겨우 세워놓기는 하였는데 지금은 上部가 東南側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古老談에 依하면 이때 數節이 行方不明이었다고 함) 그 후 積心이 兩路에 腐蝕될까 염려되어 무쇠술을 거꾸로 세워놨는데 그 形狀은 可觀이었다. 製作年代는 李朝中期以前으로 推定되었다. 이 幢竿位置에서 細路로 南行하면 田中에 幢竿支柱가 있는데 遠見만 하였을 뿐이어서 詳記할 수 없다. 다시 제자리로 와서 北行하여 石階에 오르면 正面三間 側面一間의 天王門을 通過하게 되었고 이어 仁王門(?)에 이르며 여기를 通하여 中門으로 가게 되었다. 中門에 들어서면 庭中에 놓인 浮屠二基가 눈에 띄고 그리로 향하여 가면 石段上의 大雄殿(正面三間側面三間)과 圓通殿(正面三間側面二間)이 보인다. 大雄殿前石階에 오르기 전에 左右에 李朝期의 作品으로 보이는 幢竿支



七長寺配圖
S=600:1
單位是尺
方向是北

柱가 있고 그 앞에 石燈臺石으로 짐작되는 麗代의 石物이 있다. 冥府殿(正面三間 側面三間) 마진쪽의 建物에 注意하려면 殿前의 또 다른 幢竿支柱를 發見하게 된다. 大雄殿을 向하여 다시 돌아서서 石階에 올라서면 隅石端에 조그만 石龜를 보게 된다. 築臺에 올라서면 大雄殿隅柱前에 配置되어 있는 石獅子가 눈에 뜨인다. 大雄殿을 떠나 圓通殿을 지나 北行하면 影閣이 보이고 그 앞에 碑身이 半破된 慧炤國師碑가 보인다. 이 일대는 百蓮庵의 屈地라고 하는데 碑는 影閣石臺下에 있다. 늘씬하게 생긴 龜趺(下台石長八·三尺, 幅六·七五尺, 高六寸 龜頭高地上으로부터三·二尺 頭幅一·九尺)가 龜甲文도 또렷하게 安坐하고 있다. 龜中背에 碑坐(長五·四五尺 幅一·九五尺 側高〇·七尺)가 있고 거기에 碑身(高七·九尺 幅四·二五尺)이 豎立되어 있는데 어느때 破損되었는지 半破되었고 上半身과 螭首가 倒置되어 있다. 碑身側面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長身의 龍과 唐草文이 鐫出되어 있다. 螭首(高二·五尺 長六·二五尺 厚二·七尺)의 樣式은 麗代 다른 것들과 同類이다. 碑文은 楷書로(字徑八分)「利明哲破有通化無著靈敏淵奧具行定覺道首都統膺諡國師碑銘并序」라고 하고 「朝議大夫尙書左僕射參知政事柱國兼太子少保臣金顯奉 宣撰」하고 「宣德郎殿中丞騎都尉賜緋銀魚袋臣閔賞濟奉宣書并篆書額」하였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金石總覽(上卷八三頁)에 記載되어 있다. 碑는 高麗文宗十四年庚子(一〇六〇年)에 세워진 것인데 이는 指定된 高麗碑石中 最古의 것인 「菩提寺大鏡大師塔碑(太祖二十一)」보다 一二二年 뒤진 것이다.

寺內에 保管되어 있는 月山人替翁이 撰한 「七賢山七長寺事蹟記」(雅正十一年癸丑)와 輿地勝覽(卷八竹山縣佛宇條)등에 「禪王九년에 倭寇가 闖入內地하므로 忠州開天 寺所藏의 史籍을 이 절로 옮기어 保管하였다」는 그 史籍의 保管處를 調査하여 보았으나 밝혀지지 못하였다.

大雄殿內의 銅鍾(高三·九尺)은 「乾隆四十七年壬寅十一月」의 作品이다. 圓殿通前破塔(本誌二卷七號拙稿參照)과 石龜·石獅·浮屠·臺石·幢竿支柱 등에 關하여는 以後로 미루고 省略하기로 한다.

以上으로 그 大要를 紹介하였다. 그 중 鐵製幢竿과 慧炤國師碑는 마땅

히 指定하고 復原하여 完形으로 保存하였으면 좋겠다. 安城郡二竹面의 佛蹟址는 注目되어야 된다고 強調한 바 있으나 아무런 調査가 進捗되어 있지 못해 遺憾이다. 그 중 七長寺는 詳細히 調査되어야 할 遺蹟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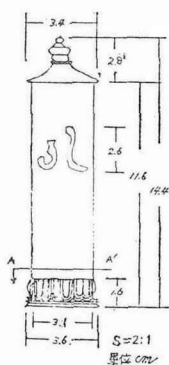
資料

新羅金銅經筒의 新例

黃 壽 永

지난 九月경 경주부근의 塔址(?)에서 발견되었다고 할뿐인데 身蓋가 모두 圓形으로 鑄造된 것이다. 圓筒은 下徑三·六cm 上徑三·一cm 全高十四·四cm로서 下端에 複蓮八瓣이 둘러있고 그 中腹에 孔一字가 線刻되어 있다. 뚜껑은 아담한 曲面을 이루고 頂上에 이르러 相輪形을 一鑄하였는데 高二·八cm 徑三·四cm 鍍金良好하며 表面一部와 內面全部에 靑 녹이 덮여 있다. 新羅下代 九世紀頃의 經筒으로 推定되는 바 기왕의 出土例를 알 수 없다. 伴出物은 未詳인 바 이외에 破壞된 一個가 있었다고 한다.

(九月十五日 調査 서울에서)



考古美術 卍—스